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6일 목요일 음 5월 4일 (11월)

기상정보

호리고 비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오후에 산지와 서쪽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0°C, 낮 최고기온은 24-26°C가 되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rain and specific weather conditions like '성산' and '고산'.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해질.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5:24), sunset (19:41), and moonrise (00:28).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forecasts for the next two days, including temperature and conditions like '맑음'.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주의. Rows show UV index, wind speed, and other safety-related weather info.

월드뉴스

초고령사회 日, 노인 교통사고 골치

면허반납 독려에도 26% 운전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이 커진 데 따른 결과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이 고령자들이 내는 교통사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령자들을 상대로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재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최근 오사카 등지에서 고령 운전자들이 잇따라 대형 교통사고를 냈다. 3일 오사카(大阪)에서는 80세 고령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장에서 인도를 향해 급발진해 모터 등 4명이 부상했고, 4일에는 후쿠오카(福岡)시에서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들과 충돌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고령자들이 내는 대형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데 따른 결과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자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인지기능검사를 강화했다. 면허 갱신 때나 신호 무시 등으로 인한 법 위반시 판단력과 기억력을 측정하는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 기능 등을 갖춘 '안전운전 지원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하거나 노인 운전 지역과 시간을 제한하는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fax numbers.

목요일론



이성연 제주연구원

제주의 5월은 초록이 진해지는 나무들과 들녘의 풀들로 눈이 호사스럽다. 문득 제주를 대표하는 색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꽃들과 자연속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주의 봄은 노란색이다. 그 이유는 봄철에 대표적인 것이 유채꽃이며 노란색이기 때문이다. 여름은 철쭉의 빨간색, 가을은 메밀의 순백색, 겨울은 설경과 감귤의 백색과 노란색이다. 따라서 제주의 대표색은 노랑, 빨강, 흰색이며, 주변에서 보는

제주를 대표하는 색은 무엇일까

들과 흙들은 검은색, 나무는 초록색이다. 그래서 필자는 제주의 대표색은 검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이라고 생각한다. 검은색이 연상되는 것은 돌담과 들녘의 흙이다. 초록색은 꽃자왈을 비롯한 나무들이다. 노란색은 유채꽃, 해바라기, 감귤이다. 빨간색은 송이, 동백, 진달래, 철쭉 등이다. 흰색은 메밀, 한라산의 눈이 대표적이다. 색은 공기와 배경, 햇볕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눈에서 인식하게 되는데 나무들의 초록색도 지역에 따라 배경이 되는 흙과 돌의 차이로 인해 다르다고 한다. 봄철에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발담과 어우러지는 노란 유채꽃을 보기 위해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유채와 돌담들이 묘하게 잘 어울리는 곳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추억과 감흥을 오래 간직하곤 한다. 여름은 제주의 한라산

을 비롯한 오름에 지천으로 보이는 철쭉과 진달래가 만개한 붉은색의 경관은 한라산, 제주의 풀들, 그리고 초록의 식물들과 시각적으로 잘 어울린다. 가을은 최근 들어서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메밀이 만들어내는 순백색의 경관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제주의 발달과 잘 조화되어 장관을 이뤄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겨울은 한라산의 설경이 대표한다. 따라서 하얀 눈이 제주의 시각경관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고 겨울산의 설경을 좋아하자는 탐방객들로 인해 겨울철 한라산은 인기가 좋고 탐방객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 따른 제주대표색으로 제주바다색, 감귤색, 현무암색 등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주의 자연환경에서 착안된 색들이다. 자연과 동화되는

색채와 자연경관이 보존 및 향유할 수 있는 색채들이 제시되었고, 배경이 되는 색, 바탕이 되는 색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필자가 볼 때는 도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색들이 지정되어 있고,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경관심이나 건축심의 등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제주를 찾는 사람들이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방문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사시사철 볼 만한 경관을 지속해 나갈 것인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소중한 가치는 있을 때는 모르고 없어지면 알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내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후손들에게 잠깐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열린마당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한솔기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중요한 만큼 그에 따른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년에 6.12월에 각각 부과된다. 6월에 상반기, 12월에 하반기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후불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세액이 부과되는데 주로 경차나 전기·영양용 승용차가 이에 해당한다. 자동차세가 다른 지방세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기준일이 없다는 점이다. 과세기준일이 없기에 사용한 만큼의 세금을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하루라도 소유한다면 자동차 세금이 나오는 것이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제주시 공무원



박선나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지난 3박 4일간 공직자 역할 정립, 변화와 혁신 인식, 문제해결·기회력 향상 등을 주제로 혁신인재양성 위탁교육을 실시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야구에 관한 것이었다. 야구는 평소 관심 있는 종목은 아니어서 잘 몰랐었는데 인생과 밀접해 있는 부분이 많았다. 야구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감독이 그라운드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과 선수 간에 상하관계가 아닌 한 팀이라는 인식을 들게 한다. 팀원 간에는 본인의 안타나 홈런 칠 기회를 희생해 주자의 진루를 돕는 희생번트도 있었다.

이처럼 야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 직장 내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았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개인만 잘해서는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아무래도 공동체 생활이다보니 협조해야 할 일도 있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팀보다는 위대한 선수가 없듯이 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때론 희생하며 이롭게 한다면 더욱 건강한 제주시 공직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번에 제주시 혁신인재양성 교육을 다녀와서 공직자의 기본 소양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직렬의 공직원 들을 만나 교류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도 함께 상부상조한다면 좀 더 전문적이며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함께 교육 받고 과제를 해가면서 소속감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음 회에도 제주시 공무원들이 필요한 역량을 배울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마련됐으면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사무실 임대' (Office Rental) at Hanra Ilbo 1st floor, Jeju City, with contact number 064-750-2530.

Advertisement for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전설(주)' (Jeju Telecom Infrastructure Construction Hanra Jeonseol Co.), listing services like fiber optic and CCTV installation.

Advertisement for '티엔정보기술(주)' (Tien Information Technology Co.), highlighting '정보통신의 미래' (Future of ICT) and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Integrated solution for customers).

Advertisement for '연세포르테비뇨기과' (Yonsei Fortephrenology Clinic), offering urology services and contact number 064) 724-7575.